

다가온 포스트 휴먼의 시대, 아이작 아시모프 다시 읽기

로봇 시티 시리즈 『강철 도시』, 『벌거벗은 태양』, 『열린 세계』를 중심으로

The Coming Post-human Era, Rereading Isaac Asimov
: Focusing on the robot city series *The Caves of Steel*, *The Naked Sun*, and *The Robots of Dawn*

한승우*

국문요약 아이작 아시모프는 첫 로봇 단편 「로비」 이후 양전자 두뇌 기술이 사용되는 로봇 이야기를 꾸준히 창작하였다. 그는 잔인한 로봇 대신 안전 원칙을 입력한 로봇을 상상했고, 이를 위해 로봇 3원칙을 고안한다. 그의 소설은 파괴된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과 인구폭등 및 식량난 등의 인류세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예견하였으며, 로봇공학과 양전자 두뇌와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정확히 예측되었다. 아시모프의 소설은 고전으로서 후대의 작가와 영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다시 과학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로봇 도시 시리즈에서 아시모프는 아메리카 개척사를 메타포로 설정한 뒤, 추리소설의 구조를 골자로 가져왔다. 탐정 역할에는 형사 베일리를, 파트너 역할에는 로봇 다닐을 배치한 후 미스터리와 SF를 융합하여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퇴보한 지구와 평화롭고 앞선 문명을 누리는 우주시의 모습이 대조적 배치되고,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와 로봇 노예화, 로봇 3원칙이 지닌 한계 등의 예민한 쟁점들이 함께 조명되고 있다.

아시모프가 소설 속에서 제시한 'C/Fe'는 인간 전체와 비인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세계를 추구하는 아시모프의 이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기호이다. 아시모프의 C/Fe의 개념은 인간과 비인간이 손을 잡고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세계를 재건설해 가는 가능성을 눈앞에 펼쳐 보여준다.

핵심어 아이작 아시모프, 인류세, 틀루세, 포스트휴먼, 소중한 타자, 재세계화, 로봇 3원칙

*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 부교수.

차례

1. 과거에서 온 미래의 이야기
2. 로봇 시티 시리즈의 세계관
3. 로봇 시티 시리즈가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
4. 인간+로봇, 그리고 C/Fe
5. 나은 미래보다 다른 미래를 위하여

1. 과거에서 온 미래의 이야기

2023년 현재 세계의 인구수는 80억을 돌파했으며,⁰¹ UN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명에 이르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⁰²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량은 정해진 토지에서 수확하므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인구는 그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⁰³ 따라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만이 해답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와 후생은 보장될 수가 없다.

빈민들에게 청결을 강조하는 대신 불결함에 익숙해지도록 선전해야 한다. 도시의 거리들은 더욱 비좁아져야 하며, 보다 작은 집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여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골의 경우 썩은 물

01 「세계인구」, 『Worldmeter』, <https://www.worldometers.info/kr/>, 2023년 11월 2일 검색.

02 자리아 고벳, 「지구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2022.9.17.

03 토마스 맬서스, 이서행 역, 『인구론』, 동서문화사, 2011, 20~22쪽 참조.

웅덩이 근처에 마을을 짓고 특히 건강에 유해한 습지대에 새 정착지를 건설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염병 치료약이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회혼란을 근절할 방법으로 인류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 인도주의적이나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⁰⁴

멜서스는 저소득층을 희생함으로써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고, 전쟁과 질병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꺼번에 사망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멜서스의 주장은 이후로 많은 논란과 허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이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 낳아 짧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⁰⁵ 등의 캠페인성 표어가 남발되던 때도 있었다.

『인구론』이 1798년에 출판된 이후 2세기가 지난 지금까지의 궤적을 되돌아봤을 때, 멜서스의 예언은 빗나간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인구 폭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 및 생태계 교란 등의 요소들은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적 요소이며, 제3세계 국가의 식량난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인구의 억제만이 답이라는 멜서스의 주장은 어쩌면 여전히 유효한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7월, 인류세 실무 그룹^{AWG}은 국제표준총서구역으로 크로퍼드 호수를 선정하고, 인류세가 시작된 1950년대에 전 지구에 흔적을 남긴 ‘플루토늄’을 주요 마커^키로 정했다.⁰⁶ 이로써 인류는 마지막 빙하기 이

04 위의 책, 473쪽.

05 홍승아,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2014.12.1.

06 남중영, 「인류세 대표 지층은 캐나다 ‘크로퍼트 호수」, 『한겨레 신문』, 2023.7.12.

후 1만 1700년 동안 이어져온 ‘홀로세Holocene’를 끝내고 ‘신생대 제4기 인류세 크로퍼드질’에서 살게 되었다. 지구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홀로세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인류세⁰⁷로 명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역사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⁰⁸을 인정한 것이며, 지구의 한계치를 넘어서 자연의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한 ‘인간의 시대’⁰⁹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인류세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통칭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팰서스의 저주 안에서 인류는 여러 재난들과 위태롭게 동거하는 중이다. 끔찍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해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함께 이룩하는 또 다른 세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러웨이는 인류세가 지닌 인간 중심적 의미를 비판하고, ‘톨루세Chthulucene’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¹⁰고 주장한다. 그녀가 말하는 ‘친척’이란 인간과 동물 심지어 기계와 인공지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구 위의 인간과 비인간을 통틀어 연대의 이름이다. 인류가 직면한 멸종과 파괴의 위기 앞에서 비인간 타자들과의 책임감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그들과 함께 ‘세계를 다시 만드는 작업’¹¹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것이 해러웨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존중과 공존의 세계를 ‘재세계화reworlding

07 최평순/다큐프라이임 <인류세> 제작팀,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너무, 2020, 18쪽.

08 위의 책, 320쪽.

09 엘C. 엘리스, 김용진·박범순 역, 『인류세』, 교유서가, 2021, 162쪽.

10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179쪽.

11 김애령,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 9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20, 11쪽.

작업'¹²이라고 일컫는다. 인간과 비인간이 손을 잡고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세계를 재건설해 가는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 그것을 해러웨이는 'SF'라고 칭했다.

SF는 이야기하기이고, 사실을 말하기이다. 지나간 것이든 지금 여기 있는 것이든 아직 오지 않는 것이든, 가능한 세계들과 가능한 시간들, 물질-기호론적 세계들의 패턴 만들기이다.¹³

해러웨이에게 SF는 “실천적”인 “작동 과정”¹⁴이며, 미래 정치를 위한 상상력이다. 함께 미래의 것들을 헤아려보면서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유토피아가 담보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정치가 죽지 않게 지켜”¹⁵낼 수 있다. 다양한 협력자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SF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해러웨이가 말하는 SF의 개념을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의 장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작가와 독자가 이야기를 매개로 미래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과 현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품게 되는 사고의 과정은 매우 닮아 있다.

훌륭한 공상과학소설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인류세 혹은 툴루세를 살아갈 우리는 과거에서 온 미래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읽어 가면서 현실이 나아가야 가야 할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안내서로서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은 적합성을 갖는다. 그의 소설에는 파괴된 지구의 자연

12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22, 266쪽.

13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앞의 책, 59쪽.

14 위의 책, 11쪽.

15 위의 책, 208쪽.

시스템과 인구 폭등 및 식량난 등의 인류세가 지닌 문제점들이 그대로 예측됐으며, 로봇공학과 양전자 두뇌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확히 적중해있다. 아시모프의 소설은 고전이 되어 후대의 작가와 영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다시 과학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상과학소설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시티 시리즈 중 일부를 들여다보고,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찾아 반추해 보려고 한다.

2. 로봇 시티 시리즈의 세계관

아이작 아시모프 Isaac Asimov, 1920~1992는 첫 로봇 단편 「로비 Rossie」¹⁶ 이후 양전자 두뇌¹⁶ 기술이 사용되는 로봇 이야기를 꾸준히 창작하였다. 아시모프는 『프랑켄슈타인』과 『R.U.R.』에서 등장하는 잔인한 로봇들에 식상함을 느꼈고, 안전 원칙을 입력한 로봇을 상상하였다.¹⁷ 안전 원칙은 결합과 압력을 받아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모아 더 나은 기계로 진화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로봇 공학이라는 용어와 로봇 3원칙을 다음과 같이 고안해냈다.

로봇공학의 3원칙

- 16 아시모프는 1939년 19살에 현명하게 사용되고 위험하지 않으며 맡은 일을 잘 하는 로봇 이야기를 쓰려고 마음먹었다. 동력원이 있어야 했으므로 양전자 두뇌(positronic brain)를 도입했다. 이 말은 형식상의 전문 용어였을 뿐이지만, 유용하고 다용도이며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음, 즉 당시로서는 발명되지 않았던 컴퓨터와 같은 이미지의 동력원을 나타냈다.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창작백과』, 웅진씽크빅, 2010, 46쪽. 이와 같은 그의 상상력은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현실화되었다.
- 17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앞의 책, 45~46쪽.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¹⁸

‘로봇공학의 3원칙’은 「속임수Runaround」¹⁹⁴²에서 최초로 활자화된다. 아시모프의 나이 21살에 창조해낸 이 3원칙은 이후 많은 SF 장르 속에서 정설로 굳어지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법칙처럼 공유되고 있다. 특히, 반세기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로봇공학 원칙은 2017년 1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 ‘AI 로봇 결의안’의 뼈대가 되기도 했다.¹⁹ 이처럼, 아시모프의 상상은 가상을 넘어서 현실에까지 반영되어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규율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아시모프는 장편 로봇 도시Robot City 시리즈를 창작하면서부터, 세계관이 우주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아시모프는 이 시리즈에서 인구폭등으로 인한 식량문제와 방사능 오염으로 지구별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하생활을 선택한 인류의 모습을 그렸다. 지금의 인류세를 미리 내다본 듯하다.

18 이 소설은 단편소설 「속임수(Runaround)」(1942)로, “이봐, 로봇공학의 3원칙부터 시작해 보자고. 로봇의 양전자 두뇌 깊숙이 심어 놓은 세 가지 원칙 말이야”(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 역, 『스피드-슬레잡기 로봇』, 『아이, 로봇』, 우리교육, 2023, 68~69쪽)라는 구절과 함께 로봇공학 3원칙이 처음으로 소개된다. 여기에서 ‘로봇공학(robotics)’이라는 단어 역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3원칙이 최초로 활자화되었다. 이후 옥스퍼드 영어 사전 보충 3판에 이 단어가 수록되면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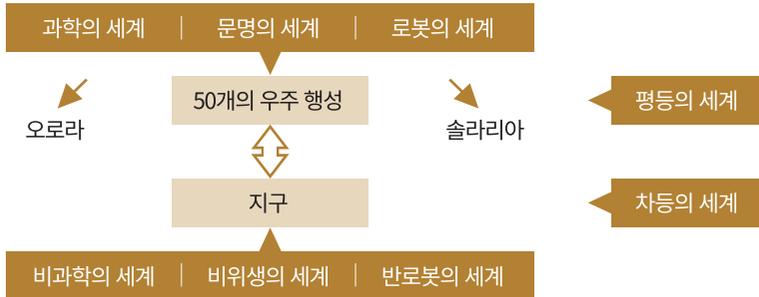
19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마련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아시모프의 법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 로봇에 관한 법 정비 제안」, 『로봇신문』, 2017.1.17.

로봇 도시 시리즈는 『강철 동굴The Caves of Steel』²⁰, 『벌거벗은 태양The Naked Sun』²¹, 『여명의 로봇The Robots of Dawn』²², 『로봇과 제국Robots and Empire』²³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을 일컫는다. 이 작품들은 같은 세계관 안에 존재하고 등장인물과 서사가 연결된다. 이후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와도 방대한 세계관이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도시 시리즈 중, 『강철 동굴』, 『벌거벗은 태양』, 『여명의 로봇』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로봇 도시 시리즈 전편을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은 중요한 작품의 토대일 뿐 아니라, 주제와 직결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므로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구에서 독립한 우주인들이 50개의 행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설정은 영국에서 독립하여 50개의 주를 일구어 새 국가를 건설한 아메리카의 개척사를 은유한 것이다. 또한, 어머니 별이었던 지구보다 더 평화롭고 앞선 문명을 건설한 우주시의 모습은 모국이었던 영국보다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위상을 상징한다. 이처럼, 로봇 시리즈의 세계관은 미국의 건국 역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아시모프는 지구별이 아닌 50개의 우주시를 미국으로 상징하였다.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건설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라

-
- 20 번역본에서는 강철 동굴을 강철 도시로 해석하였다. 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1) 강철 도시』, 현대정보문화사, 2001. 이 연구에서는 『아시모프 로봇 1-4』의 번역본을 인용하였으며, 이후 제목과 쪽수만을 본문에 제시하기로 한다.
- 21 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2) 벌거벗은 태양』, 현대정보문화사, 2001.
- 22 『여명의 로봇』(1985)은 국내 출판사에서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제목을 붙이고, 두 권으로 분리하여 소개하였다. '아시모프 로봇'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3권 『열린 세계』와 4권 『여명의 로봇』은 모두 원작 『여명의 로봇』에 해당된다. 분량이 다른 시리즈보다 많다는 이유로 분권하여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번역본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므로, 『열린 세계』(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3) 열린 세계』, 현대정보문화사, 2001)와 『여명의 로봇』(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4) 여명의 로봇』, 현대정보문화사, 2001)을 구분하여 표기하겠다.
- 23 『로봇과 제국』 역시 두 권으로 분리되어 2002년에 현대정보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과 제국』 1·2, 현대정보문화사, 2002.

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의 기본적 세계관

『강철 동굴』과 『벌거벗은 태양』은 연달아 집필되었으나, 『여명의 로봇』과 『로봇과 제국』은 3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발표되었다. 이런 공백 사이에는 1957년에 있었던 ‘스푸트니크 발사’가 놓여 있다. 1957년 이전에 써진 『강철 동굴』과 『벌거벗은 태양』은 과학 기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우주 개척으로 보고, 미국이 신대륙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간 것처럼 이제 우주를 향한 대서사시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돌입하게 되면서, 아시모프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대로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음에 잠시 안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무렵부터 로봇 시리즈와 같은 SF소설 창작을 접어두고, 논픽션적 글쓰기에 열을 올리면서 방대한 분야에서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²⁴ 그러나 우주 개척과 로봇 개발이 제 자리 걸음에 머물고,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냉전 상황 자체에만 매몰되기 시작할 무렵,

24 아시모프는 공상 과학소설과 같은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중 과학 서적들이 인기를 끌었던 시대적 유행 때문에 소설 집필을 중단했으며, 과학소설을 충분히 썼으니 자신이 더 선호하는 논픽션 저술에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로봇 시리즈의 집필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앞의 책, 24쪽.

아시모프는 로봇 시리즈의 뒷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한다. 후속작에서도 여전히 그는 우주 개척에 대한 이상과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 인류에 관심을 기울였다.

3. 로봇 시티 시리즈가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

3.1. 『강철 도시』: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의 서막

인류는 방사능 오염으로 지하 생활을 선택했다.²⁵ 그들은 땅 속에 시티문명을 건설하고, 호모농장과 수경농장으로 식량난을 극복하는 중이다. 인구 천만 명 정도가 한 시티를 이루어 총 800개의 시티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계속된 인구 폭등과 식량난으로 지구는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등급이 보장하는 특권”(39) 계층이 구분되어 있어, 배급 음식의 양과 질이 결정되고 자동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 한정된 터전과 식량 때문에 계층에 따라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제한되는 불평등 사회이다.

이런 지구에 비해, 우주시는 최첨단 과학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무병장수를 실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로봇들을 이용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다. 복지와 안락은 소수의 인구에서 온다는 우주인들의 대원칙은 인구 과잉 상태에 이른 지구인들의 이민을 거부하고, 단순 방문조차 철저히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득이하

25 아시모프는 “지구촌의 인구는 넘쳐나고 땅값 또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중략)… 수많은 사람이 참문도 없이 인공적으로 환기를 조절하는 도시와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자연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일까?”라고 말하며, 지하 세계 문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의 소설 『강철 도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작 아시모프, 권루시안 역, 『지하 도시에서 살자』, 『아이작 아시모프의 과학 에세이』, 2007, 61~62쪽.

게 우주시를 방문하게 되는 지구인들은 엄격한 건강 진단과 철저한 소독 절차를 강제 당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구인들은 꽤 큰 모멸감을 느끼곤 했다. 우주인들은 지구인들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병원균의 온상”(38)이라고 여겼고, 더욱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지구인과 우주인 사이에 가로 놓인 장벽은 “발전된 과학기술의 산물”(38)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지구는 그것을 따라갈 능력이 없었으며, 지구인을 거부하는 우주인들의 장벽을 파괴할 힘은 더더욱 없었다. 지구는 계속된 인구 폭동의 위기에 처해있고, 부족한 식량과 짧은 수명이라는 한계 속에서 허덕였다. 우주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지구를 더 나은 문명으로 끌어올리려는 ‘온건과 세력’이 등장한다.

“두 종류의 원소, 즉 탄소와 철의 화학기호지요, 일라이저. 탄소는 인간 생명활동의 기초 원소이고, 철은 로봇 생명활동의 기초입니다. 인간과 로봇을 동등하게 결합시킨 문화를 표현하고 싶을 때 편의상 C/Fe라고 합니다.” … (중략)… “아닙니다, 일라이저. C와 Fe 사이에 사선을 긋지요. 이것은 어느 하나에 우월성을 두지 않고 두 가지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강철 도시』, 95쪽)

우주인들은 로봇을 우주 국가 문명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지만, 지구인들은 로봇을 모두 퇴출시켜버렸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두 세계의 큰 문명적 격차를 가져왔다. 인류애를 가진 일부 우주인들은 도태되어 가는 지구인들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고, 로봇을 도입시켜 보다 나은 지구가 되기를 바랐다. 온건파 우주인들은 ‘인간+로봇’의 문화를 지구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를 가리켜 “C/Fe 문화”(94)라고 칭했다. C/Fe

문화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합을 내포한 슬로건이었다. 온건파 우주인들은 지구인들이 과밀한 지구를 떠나 새롭게 건설된 우주 행성 시티를 건설하고, 공민 정신과 C/Fe 문화를 도입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대화합의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

인간은 어머니 지구에서 태어났다네. 알겠지?

지구는 인간을 낳아준 어머니라네. 알겠지?

꺼져라, 우주인아, 어머니의 품에서 나가버려라.

더러운 우주인아, 알겠지?

인간은 어머니 지구에서 태어났다네, 알겠지?(『강철 도시』, 37쪽)

지구인들은 우주인들을 경계하고 의심했다. 특히, 우주인들이 사물을 로봇으로 갈아치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의 소문이 팽배해지면서 로봇의 도입을 철저하게 거부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났다. “놈들을 없애버려! 너트를 다 풀어버리라구! 산산이 분해해버려!”(52)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로봇 혐오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지구인들의 로봇 거부는 새 문물을 전파하려는 우주인에 대한 반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천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식민지”(41)에 불과했던 우주인들의 눈부신 성장에 지구인들은 열등감을 느꼈다. 어머니 행성인 지구로부터 독립하고자 그들이 저질렀던 ‘우주 대반란’(95)의 사건을 기억하는 지구인들은 그들의 배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지구인들의 보금자리인 시티를 모두 부수고 로봇을 도입하여 그들의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우주인들의 음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주인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이른바 “근대화”의 거부는 로봇이라는

www.kci.go.kr

상징적인 대상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방송에 나오는 댄서가 로봇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익숙한 누군가가 알고 보니 인간과 동일한 외형을 가진 로봇이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았다. 어찌면 우리 주변의 익숙한 누군가가 우주인들에 의해 은밀하게 유입된 로봇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인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자리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큰 혐오와 공포 속으로 지구인들을 더 깊숙이 몰아넣었다.

“당신이 모를지도 모르니까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저것들은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요. 그게 바로 정부가 저것들을 보호하는 이유지요. 이것들은 대가 없이도 부러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헛간으로 쫓겨나서 생효모나 먹고 살아야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에게 결정권만 있다면 이런 로-봇 따위는 모두 끌어내서 때려 부수겠어요. 내가 할 말은 바로 이거라고요!”(『강철 도시』, 54쪽)

민감한 시점에 이르러 우주인 서튼 박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는 로봇공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지구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혁신가였다. 우주인들은 서튼 박사의 살해 사건이 “로봇 파괴 운동”(89)을 주도하는 반 로봇 주의자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더 나아가 ‘인간-로봇(C/Fe)’의 사회를 준비하는 우주인들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지구인들의 테러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었다. 서튼 박사 살해 사건은 우주와 지구의 경직을 가져오게 될 게 뻔했다. 어떤 식으로든 살인 사건의 범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쓸 데 없는 오해는 걷어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지구와 우주의 합동 수사가 시

작되고, 지구의 뉴욕 시티 경찰국에서는 베일리를, 우주시에서는 로봇 다닐을 투입하면서 서튼 박사 살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베일리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온건파 우주인들이 생각하는 새 행성 건설이라는 이상적 프로젝트에 공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로봇 다닐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애를 가지게 되고, 로봇이 결코 ‘뉘 빠진 기계 괴물’(262)만이 아님을 깨닫는다. 일부 우주인들이 지닌 동포애와 로봇에 대한 우호적 경험은 베일리에게 정신적 성장을 가져온다. 이후 베일리는 새 행성 개척의 지지자가 되어, 지구에 긍정적인 정책 실행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베일리가 진범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진모는 모두 드러난다. 뉴욕 시티 경찰 국장 엔더비는 로봇 새미에게 시티 바깥의 넓은 황야를 건너 광선총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그것을 서튼 박사의 살해 도구로 사용한다. 국장은 광선총 없이 우주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고, 로봇 새미로부터 범죄 도구인 광선총을 건네 받았다. 엔더비는 뉴욕 시티의 회고주의자 조직의 주요 인사로,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 C/Fe 문화를 지구인에게 도입하려고 했던 서튼 박사의 로봇을 파괴함으로써, 전 우주인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튼 박사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로봇 다닐과 착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실수로 서튼 박사를 살해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틀어지고 만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회고주의자 조직의 면모도 모두 밝혀진다.

로봇 시리즈의 첫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강철 도시』는 소설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²⁶(227)가 지구인들이 가진 불행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조물인 ‘괴물’ 앞에서 혐오와 공포를 느꼈던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심리는 ‘모르는 것’으로부터 기원한 것이었다. 베일리 역시 처음에는 로봇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구인이었지만, 로봇 다닐과 함께 다니면서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명의 퇴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지구인들은 여전히 로봇을 극렬하게 배타하는 중이었다. 제목인 ‘강철 도시’는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 시티를 일컫는 말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문화와 시대적 흐름을 철저히 배타한 채 편견과 아집에 둘러싸여 서서히 자멸하고 있는 지구를 은유한다.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거부한 채 무턱대고 밀어내는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별거벗은 태양』: 인공 노예의 시대

전편 『강철 도시』에서 맹활약을 펼친 베일리는 우주시 솔라리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다시 소환된다. 우주시가 만들어진 200년 역사 이래 처음 발생한 강력 사건으로, 희생자는 태아학자 리케인 텔메어였다. 그의 아내 글래디아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으며, 살해 현장에서는 로봇 한 대가 발견되었으나 이미 양전자 두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목격자 증언이 불가능했다.

『별거벗은 태양』의 무대가 되는 솔라리아는 복지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탁월한 행성으로 묘사된다. 소수의 솔라리아인들이 2만 개의 영지를

26 로봇이 인간에게 반역할 거라는 기계 혐오에 기인한 서구의 뿌리 깊은 불안 의식을 말한다. 오노 슌타로, 김정례 외 역,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 인간은 언제 괴물이 될까?』, 에스파스, 2017, 7쪽.

차지하고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지양하고 홀로그램으로만 소통한다. 솔라리아인들은 과밀한 행성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는데, 대신 부족한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유지했다. 이런 방식은 “인간과 로봇의 비율이 1대 2만”(282)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왔지만, 출산을 조절하면서 인구수를 작은 값으로 고정시켜 로봇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면서 사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전성기의 스파르타에는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자유시민과, 그보다 조금 많은 반 자유시민층인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노예인 헬로트, 이렇게 세 계층이 있었지. 헬로트의 수는 자유시민의 20배가 넘었지. 그러나 그 헬로트도 인간의 감정과 결함을 모두 갖고 있는 인간이었소.

스파르타의 자유시민은 수가 훨씬 많은 헬로트의 반란을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모두 군사 전문가가 되었지. 결국 자유시민 모두 군사기계와 같은 삶을 살았고, 사회는 그 목적을 이루었소. 헬로트의 반란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솔라리아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자유시민과 닮은 점이 많소. 우린 우리의 헬로트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우리의 헬로트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요. 그게 그들과 우리 사이에 그어져 있는 명백한 경계선이요.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헬로트 대 스파르타 자유시민의 비율보다 천 배 이상의 비율이 된다 해도, 그들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린 스파르타의 자유시민들처럼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요. 대신에 우리는 예술이나 문화면에서는 스파르타인과 같은 시대에 살던 아테네인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었소.”(『벌거벗은 태양』, 159쪽)

솔라리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사회학자인 안셀모는 고대 지구의 스파르타 사회 시스템을 본 딴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파르타에서 자유 시민들의 안락과 풍요를 책임지던 노예는 로봇으로 대체되었고, 로봇 3원칙에 따라 반란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락함만 누리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솔라리아는 “피라미드의 정점만이 존재하는 사회”(160)이며, 그 외의 여러 하위 계층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유한계급인 곳”(167)이 솔라리아였고, “인간 역사의 끝”과 같은 유토피아가 솔라리아였다. 솔라리아인들은 로봇의 수를 제한 없이 만들어 사용하면서 땅을 얼마든지 개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락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숫자를 소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철저한 산야 제한과 유전자 돌연변이 파악을 통한 우생학으로 적정 인구수를 조절해야만 했다.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은 ‘양전자 두뇌 로봇’이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본능을 그렇게 철저히 억제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군요.

군거본능 말입니다.

오로지 진화의 문제일 뿐이니까요. (『별거벗은 태양』, 187~188쪽 발췌 인용)

솔라리아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본능을 지우고 시스템에 맞는 생활 방식을 전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아이들은 밀폐된 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을 갖도록 교육되었으며, 차츰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접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훈련했다. 대신 홀로그램을 활용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연습시켰다. 솔라리아인들은 유전자 분석

을 통해 일찌감치 결혼할 상대를 결정하고, 임신 허가가 있을 시에만 일시적으로 만나 아이를 가졌다. 솔라리아에서 출산을 관리하던 텔메어는 무수정 난자를 보관한 후 완벽하게 인공 수정할 수 있는 연구를 거듭했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하! 그럼 제1원칙을 이렇게 말해도 되겠군요. ‘로봇은 그것이 아는 한도 내에서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의로 인간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러니까 로봇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역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 아무 위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명령받았다면 말입니다. (『벌거벗은 태양』, 217~218쪽 발췌 인용)

베일리는 로봇 3원칙의 허점을 깨닫는다. 1원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명령, 예를 들어 독이 든 우유인 줄 모르는 로봇에게 상대방의 잔에 ‘이 우유를 가득 부어라’ 라고 명령한다면, 로봇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는 인간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1원칙인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에 위배된 상황이 연출된다. 자신이 한 일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친 것임을 알게 된 로봇은 두뇌 회로에 문제를 일으키고, 고장 현상을 겪게 된다. 텔메어의 살인 현장을 목격했던 로봇 역시 두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로봇이 어떤 식으로든 텔메어의 죽음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였다.

베일리는 솔라리아의 로봇 공학자인 리비그가 살인사건에 연관되었음을 밝혀낸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글래디아에게 로봇이 자신의 팔을 몸통에서 떼어 건네주도록 지시한 것이 리비그였는데, 그는 로봇 3원칙의 논리적 허점을 이용해 인간을 해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리비그는 텔메어 살인 사건에 개입된 것 이외에도,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로봇 개발을 은밀하게 진행 중인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다. 인간 살상이 가능한 로봇을 이용해 “은하계 정복”(278)을 꾀한 전모도 함께 밝혀진다.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없다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적인 가치들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살아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겁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접촉은 절대로 직접 대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별거벗은 태양』, 290쪽)

리비그는 자신의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면 인간들이 곧 들이닥쳐 자신을 체포할 거라는 공포에 휩싸인다. 타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고립된 삶에 안정감을 느끼는 솔라리아인으로서 리비그는 인간들과 대면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는 인간 대면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살해버린다.

베일리는 오로라의 차관 미님에게 솔라리아인들의 모습은 곧 지구인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주인들이 훌륭한 행성들을 건설할 때 지구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시티라는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우주인들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지구의 고립은 이제 희망 없음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급기야 언제든지 우주인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지구 시티는

‘강철 동굴’(299)에 불과하며, 이제 그 공간의 수명은 다 끝났다. ‘열린 공간’(298)인 우주로 지구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우주 행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일리의 이와 같은 설득에 미님은 지구가 새로운 행성 개척에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기울이게 된다.

베일리는 지구가 우주인들의 손을 잡고 우주 행성의 개척에 나서지 않으면, 어떠한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록 눈부신 태양 빛이 두렵겠지만, 지하 밖으로 나와 빛이 머무르는 곳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행성 건설을 위해 우주로 나아가는 인류를 떠올리며 소설은 마무리 된다.

3.3. 『열린 세계』: 로봇 3원칙의 모순

『열린 세계』와 『여명의 로봇』²⁷은 솔라리아에서의 텔메어 살인 사건을 해결한 지 3년이 흐른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동안 베일리의 수사 내용은 초과장 드라마로 제작되어 우주 국가 연합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덕분에 베일리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의 수사 능력 역시 영웅급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다.

베일리는 오로라의 사법 차관에게 양전자 두뇌가 동결 되어 살해된 로봇 사건을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표면적 이유는 그러했으나, 사실상 지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추진하고 있던 온건파 팩스톨프가 로봇 살해 사건의 범인이라는 스캔들이 퍼지면서 실각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숨겨진 쟁점이었다. 팩스톨프는 지구를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27 이 연구에서는 번역본을 참고하였으므로, 『열린 세계』(정보문화사, 2001)와 『여명의 로봇』(정보문화사, 2001)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과격론자들에 의해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믿었고, 지구인인 베일리에
게 도움을 청했다. 베일리는 지구에 우호적인 패스톨프가 실각하게 된
다면 지구인들의 새 행성 개척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로
봇 살해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아들인다.

‘인간형 로봇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해서 그것
이 살인인가?’ 라는 묵직한 의문을 내포한 이 사건은 향후 로봇을 근간
으로 하는 우주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었다. 로봇의 ‘정신
동결’은 ‘로봇 블럭’ 혹은 그것을 줄여서 ‘로 블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것은 인간의 뇌가 우발적인 이상을 일으켜 뇌졸중에 걸리듯이 양전자의
이상 표류로 정신이 동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주로 로봇의 회로가 녹
아버리거나 버그가 발생한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며 작동이 중지되는 증
세를 보인다.

베일리는 로봇의 정신 동결은 로봇 3원칙이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믿었다. 로봇이 3가지 원칙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혼란을 겪
게 되고, 회로에 큰 충격이 가 급기야 멈춰버리는 정신 동결 상태가 된
다. 그런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인간이 있다면, 폭력 행위로 여겨 로
봇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
는 민감한 문제와 연결된다. 이것을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범죄 행위
로 인정하게 된다면, 엄연한 ‘로봇 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만
들어낸 ‘인공 물질’에 대해 ‘살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
로도 난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로봇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질입니다. 이 관독기처럼 말이에요. 인
공물은 ‘파괴되고’ ‘훼손되고’ ‘부수지는 것’입니다. ‘살해되는’ 것은 결코 아

니지요. (『열린 세계』, 52쪽)

솔라리아에서의 살인 사건에서 주요 용의자였던 글래디아는 이번에도 또 다시 주요한 용의자가 되어 등장한다. 그녀는 살해된 로봇 잔더를 가리켜 “남편”(185)이라고 지칭하는데, 일종의 섹스 로봇의 기능을 잔더가 수행했다는 것을 고백한다. 로봇 잔더가 글래디아와의 관계를 유지해도 그녀가 불행해지고 관계를 끊어도 불행해하게 될 것임을 인지한 후,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 제1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 동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너는 진실을 말했다거나 거짓을 말했다거나 간에 인간에게 해를 입힌 거야. 네가 어떻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제1원칙을 따를 수 없었을 거라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로봇은 활동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의 양전자회로가 타버린 겁니다. 그의 두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파괴된 로봇에게 남긴 켈빈의 마지막 말은 ‘거짓말쟁이!’ 였다고 합니다. (『열린 세계』, 111쪽)

패스톨프는 로봇 3원칙의 모순으로 인한 로봇의 정신동결을 설명하기 위해, 「수잔 켈빈과 독심술 로봇 이야기」²⁸를 들려준다. 이로써 베일

28 아이작 아시모프는 자신의 단편 작품 「Liar」(1941)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처럼 등장시키고 있다. ‘허비’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은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람마다 각기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모두 말해준다. 허비는 당연히 1원칙에 따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만을 들려주었지만, 진실이 아니거나 환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수잔 켈빈은 이를 눈치 채고 로봇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지만, 로봇은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1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 수잔 켈빈의 계속된 압박으로 허비의 양전자 두뇌는 정지해 버린다. 이에 대해 수잔 켈빈은 “미친 것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 역, 『허비: 마음을 읽는 거짓말쟁이』, 앞의 책, 190쪽)라고 말한다. 이 이야

리는 이번 사건이 오래된 옛 전설에서처럼, 로봇 원칙에 위배되는 질문을 받은 로봇 잔더가 딜레마 속에서 정신 동결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제 오로라는 무한제국을 건설하고 팽창해나갈 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가 단지 지구로만 남아 있겠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었소. 은하계를 수중에 넣는다면 행성 하나쯤 지구인에게 배당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요. 게다가 우리는 지구를 실용적이고도 안락한 세계로 만들어줄 용의도 있소.

반면에, 만약 오로라인들이 패스토프가 요구하는 대로 지구인들을 정착민으로 보내는 것을 용납한다 해도 그건 얼마 못 갈 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인들이 은하계를 접수하고 우리를 포위하게 되면 우리는 쇠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오로라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 나로서도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게 되요. 내 아무리 지구인들에 대해 호의를 품고 있다 해도, 오로라인들 사이에서 타오르는 의혹과 편견의 불길은 견디낼 재간이 없소. 지구인들에게 그건 매우 불행한 결과겠지요. (『여명의 로봇』, 133쪽)

오로라의 입법부에서는 은하계의 탐사와 정착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심하던 중이었다. 오로라가 단독 수행하는 것, 다른 우주행성과 공동 추진하는 것, 지구인에게 맡기는 것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로봇 공학자인 아마디로는 새로운 행성을 향해 “벌떼”처럼 모여들어 “곤충”처럼 번식할 지구인들의 진출을 막아야 하며,

기는 로봇 3원칙의 모순을 이용해서 로봇의 양전자 두뇌를 정신동결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에피소드였다.

그들로부터 은하계를 지켜내기 위해 다른 행성에 정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과격론자였다. 즉, 지구인에게 맡겨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온건파 패스톨프의 입장과는 정확히 대치된 입장에 있었다.

베일리는 패스톨프, 아마디로, 사법부 의장 호더 앞에서 아마디로가 패스톨프의 로봇인 잔더를 몰래 실험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살해한 후 그 혐의를 패스톨프에게 덮어씌우려 했음을 폭로한다. 의장은 아마디로가 패스톨프에게 잔더의 동작 불능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로봇 살해 혐의를 널리 유포한 후, 입법부에서 영원히 퇴장시키려 했다는 전모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의장은 불필요한 논쟁과 고발로 오로라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 보다, 패스톨프의 주장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일을 봉합하려 한다. 결국 “지구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을 단념하겠다는 아마디로 박사의 엄숙한 동의”(266)를 받아낸 후, 지구인도 은하계에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약에 아마디로의 세계당도 동참하겠다는 약속까지 얻어낸다. 이로써 베일리는 로봇 살해 사건을 넘어 지구인이 우주로 이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만들어낸다.

베일리는 우주항공으로 출발하기 전, 오로라에서 내내 곁을 지켰던 패스톨프의 구형 로봇 지스카드와 대화할 시간을 갖는다. 베일리는 지스카드에게 “잔더의 죽음이 고의적인 로봇 살해사건이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283)라고 말하며, 지스카드를 향해 마음에 묻어 두었던 본심을 꺼내서 보여준다.

또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혹시 네 정체를 내게 들

켰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을 흐려놓지는 않았나?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그런 상황을 되돌아봐도 웬지 중요한 장면은 기억도 안 나게 말야. 하지만 넌 완벽하게 해내진 못했어. 아마 네 능력의 한계 때문이겠지. (『여명의 로봇』, 286쪽)

사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로봇 지스카드가 있었다. 지스카드는 인간의 기억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심술 로봇으로, 예기치 않은 역량을 가진 일종의 망가진 두뇌²⁹를 가진 존재였다. 지스카드는 은하제국을 건설할 주체가 오로라를 포함한 다른 우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구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로봇 살인 사건을 기획하고, 지구인 베일리를 사건 조사자로 끌어들였다. 베일리는 지스카드의 계획대로 아미디로를 궁지로 몰아 지구인들의 은하계 정착 계획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썼다. 모든 것이 지스카드가 바라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언젠가는 그 연구가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장수-로봇’ 문명이 우주 행성들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고, 단명한 인간들에 의한 ‘로봇 없는 인간성의 확장’이란 새물결이 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명의 로봇』, 293쪽)

지스카드는 로봇을 보내 행성을 개척하고 이후에 우주인이 이주하는 식의 개발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새로운 행성은 인간의 힘으로 건설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로봇 사용을 거부한 지구인이 개척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스카드는 패스톨프와 의장의 의

29 이동신, 「망가진 머리: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72쪽.

식에 신념과 확신을 심어주었고, 지구인들이 은하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사건에 개입된 이들의 상황을 조금씩 조절했다. 지구인들의 행성 개척은 지스카드라는 이름의 로봇에 의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고, 이후의 로봇 시티 시리즈에서 지스카드의 계획은 현실이 되어 지구인들의 우주 행성 개척사로 연결된다.

4. 인간+로봇, 그리고 C/Fe

아시모프는 로봇 시리즈에서 아메리카 개척사를 메타포로 설정한 뒤, 추리소설의 골자를 취한다. 탐정 역할에는 형사 베일리르, 파트너 역할에는 로봇 다닐을 배치한 후 미스터리와 SF를 융합하여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보통 추리소설의 결말은 파편화된 단서들이 인과관계 안에서 나란히 정렬되는 미덕을 지닌다. 미지의 범인이 밝혀지고, 그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정의는 끝내 승리를 거둔다. 미스터리의 해소는 합리적 사고의 승리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꿰어 정확한 서사적 순서로 재정립하는 탐정(혹은 형사)은 신비로운 천리안을 가진 사람의 계승자로, ‘숨겨진 의미들’을 낳는 불가해한 징표들의 해독자³⁰가 된다. 살인 사건이라는 결과로부터 그것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은 실제 이야기를 재조립하는 ‘무오류의 탐정’³¹에 의해 완성되고, 독자들은 비로소 완벽한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

30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역, 『베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108쪽.

31 위의 책, 106~107쪽 참조.

이것은 사실, 근대적인 세계관이 주는 환상과도 일치한다. 그 역사적 전개를 살펴볼 때, 추리소설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소설적 형식이었다.³²

주인공에게 탐정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말에 강력한 설득력과 과학적 힘을 실어준 것과 같다. 이에 따라, 형사 베일리는 이성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신비한 투시력을 지닌 존재로, 세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지구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오차 없는 해답을 가진 인물이 된다. 그는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 안에 갇혀 무지몽매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구인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행성을 개척해 나갈 것을 설득한다. 베일리는 과학적 합리주의를 의인화한 인물로서 그가 내놓은 해답은 망상이 아닌 이상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아시모프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확신에 찬 초상”을 쓰고자 한 것이지,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³³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에 빠져 로봇을 멀리하고 우주로 나아갈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인류의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했고, 과학의 퇴보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시모프는 미스테리한 사건까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이성의 소유자인 베일리를 내세워, 인류가 과학기술을 동반자 삼아 문화를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역설한다.

또한, 아시모프는 우주 행성 솔라리아를 통해, 로봇이라는 인공 노예를 만들어 노동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경계한다.

32 브왈로 나르스작, 김정곤 역, 「추리소설의 기원」,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화연구회, 1997, 24~25쪽.

33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앞의 책, 48쪽.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실존을 위해 ‘노동’, ‘작업’,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으로, ‘작업’은 사회적으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 ‘행위’는 이 모든 전제 조건들을 통합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실천적 활동으로 표출되는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다. 그러나, 솔라리아에는 이 세 가지의 인간 조건 모두가 파괴되고 없다. 노동과 작업 모두를 로봇이 도맡고, 서로를 만나 함께 뜻을 모으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과학과 기술이 가능한 한 인간을 자연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인공세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갖는다³⁴고 말한다.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의 전체주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솔라리아는 완전히 통제된 미래형 전체사회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호모 파베르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도구를 발명한 것이지—적어도 일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인간의 삶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기계의 주인인가 노예인가가 아니라 기계가 여전히 세계와 그 사물에 봉사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기계와 그 과정의 자동적 운동이 세계와 사물을 지배하고 심지어 파괴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다.³⁵

아렌트가 과학적 사고와 도구들을 모두 버리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에 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여럿이서 함께 생각하는 ‘사유’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³⁶ 산아제한과 인공수정 실험, 살상로봇 개발은 지금 무엇

34 한나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34쪽.

35 위의 책, 246쪽.

36 한나아렌트, 이진우 역, 위의 책, 56쪽.

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개인적 폭주 행위였다. 인간의 조건이 없어진 세상에서 인류는 새로운 탄생을 말할 수 없고, 사멸만을 기다리는 무의미의 존재로 전락될 수 있다. 아시모프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전체주의적 폐단을 경고하고, 로봇의 노예화는 곧 인간의 노예화의 또 다른 이름임을 경고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조건에서 '노동'이 적어지고, '작업'이 약화될 때 더욱 분명해지고 강화되어야 할 것은 '행위'이다.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거부하고, 광장에 모여 함께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문명에 봉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자격과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밀실 속 소수의 공학자와 거대 권력자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학윤리에 대해 함께 사유해야 한다.

아시모프는 이런 논점을 솔라리아 사회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준다. 미래 사회는 인류 문명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인간의 조건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아시모프는 과학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인간의 조건 자체를 상실해가는 솔라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류의 방향성을 묻고 있다. 과학의 퇴보를 늘 염려했던 그였지만, 그 기술을 주도해야 할 인간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솔라리아는 과학기술의 시대 앞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우화로 읽어야 한다.

아시모프의 소설에서 로봇은 미래 과학 기술의 핵심이다. 그렇다보니, 아시모프를 로봇 지상주의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가 쓴 소설 전체를 통해 본 로봇은 완전무결한 기계와는 거리가 멀다. 오류를 가진 피조물,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첫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걸을 보조하는 존재가 아시모프가 상상한 로봇이다. 그가 상상한 로봇

은 만능이 아니다. 양전자 두뇌가 일으키는 정신 동결처럼, 로봇은 모순과 딜레마에 빠지면 다운되어버리는 허약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 아시모프는 로봇을 “향상되긴 했어도 단순한 기계”³⁷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고, 인간에 의해 완벽을 향해 가는 발전 중인 기술로 보았다. 이 미완의 물체를 향해 누군가가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인류의 위협은 시작된다. 로봇이 가진 미 완결성과 인간의 욕망이 불러올 파국을 경계하여 그가 만들어낸 것이 로봇 3원칙이었고, 여기에 제0원칙을 다시 추가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된다.

“무수한 생명들이 찌는 직물은 한 가닥의 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파트너 일라이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될 수 있으며, 전체로서의 인류가 개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략)… 저는 제1원칙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것이 로봇공학 제0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원칙은 이렇게 되겠지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단 제1원칙은 로봇공학의 제0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로봇과 제국 2』, 136쪽)

로봇공학 제0원칙은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이다. 이는 3원칙이 가진 허술함과 모순에 대해 다수의 작품을 통해 고민해 오던 아시모프가 내놓은 해답이었다. 그렇다면, ‘인류’라는 개념은 어디에 두어

37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앞의 책, 45쪽.

야 할 것인가? 제0원칙에서 언급하는 ‘인류’는 인간 및 개량 인간, 사이보그, 로봇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제0원칙은 인간과 포스트휴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걸맞은 원칙으로 남아야 한다. 이는 아시모프의 소설에서 ‘C/Fe’의 개념을 보면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탐정 옆에 있는 동료는 전지전능한 서술자로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구술자의 역할하기도 하지만, 탐정이 알아낸 진실의 의미를 눈치 채지 못해 탐정의 영웅화를 돕는 일을 자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시모프가 창조해낸 베일리와 로봇 다닐은 소설 속 ‘C/Fe’를 상징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파트너가 된다. 로봇 다닐은 뛰어난 양전자 두뇌에 완벽한 기능을 갖춘 육체를 소유하고 있으나, 결코 베일리가 가진 직관적 추리력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추리의 주도적인 역할은 베일리의 몫이고, 다닐은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나 베일리가 육체적 한계로 인해 위기에 처할 때, 로봇 다닐은 조수로서 활약한다.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여 미스터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논리 정연한 질서를 재구성하는 모습은 아시모프가 생각하는 로봇과 인간의 공진화의 이상적 모범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아시모프의 ‘C/Fe’ 개념은 인간과 기계, 혹은 인간과 로봇의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호문자이다. 따라서, 제0원칙 속 ‘인류’는 미래를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것이 아시모프가 소설 속에서 꿈꾸었던 미래 인류의 청사진인 것이다.

5. 나은 미래보다 다른 미래를 위하여

어떤 이는 아시모프의 소설을 제국주의의 상상, 우주 개발의 욕망이라는 비판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봇 시티 시리즈가 가진 방대한 이야기 중에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첫머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후 등장할 수많은 인물들의 선택과 거대한 과학기술 문명의 세계를 두루 경험한 후 아시모프에 대한 생각을 결정지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오래된 미래의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든 이유는 그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사용했던 로봇공학이라는 용어는 가장 주목받는 과학기술이 되었으며, 양전자 두뇌는 인공지능으로 현실화 되었다. 또,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사는 솔라리아인들의 모습은 코로나19 시대에 서로를 대면하지 못하고 가상 미팅 플랫폼 안으로 모여 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로봇 3원칙은 과학 및 기술자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가 상상한 지구는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해 피폐해진 인류세의 끝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을 읽고 ‘스페이스X’를 개발해 화성에 식민지 건설을 도모³⁸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아시모프의 상상력은 단순한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 속 과학과 기술에 반영되고 있으며, 다시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2017년에 발표된 EU의 ‘AI 로봇 결의안’에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의 개념이 등장한다. AI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과하게

38 유지한,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머스크, 그는 해냈다」, 『조선일보』, 2020.5.31.

될 경우 로봇이 사고와 배상의 대상이 되고,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³⁹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제2의 인간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로봇이 노예처럼 종속화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아시모프가 말했던 'C/fe'의 개념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휴먼의 종種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성을 다중보편성multiversality 안에 위치시키고, 자아를 타자성 안에 계보학적으로 재배치하면서 개방적으로 사고⁴⁰해야만 가능해진다. 이는 해러웨이가 말한 반려종 혹은 '소중한 타자'⁴¹와 유사하다. 인간은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지금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세계들과 얽힌 채로 함께 만드는 공동제작sympoiesis에 참여한다.⁴² 해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이 소유주와 피소유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생명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반려종companion'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 기술이 이룩할 미래 사회에는 인간의 몸속에 기계가 들어가고, 인간의 정신이 네트워크에 업로드되며,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이 탄생될 것이다. 이제 인간-종種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살과 뼈를 넘나드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소중한 타자'가 함께 섞여 공발생적 symbiogenesis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아시모프는 이것을 'C/Fe'라는 짧은 기호로 상징하였다.

이제 우리는 인류세의 시작 지점에 서 있다. 파괴적 행위로 지구별

39 임유진,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17, 2쪽.

40 프란체스카 페란도,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2021, 371쪽.

41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앞의 책, 125쪽.

42 김애령, 앞의 글, 19~20쪽.

이 위기에 처했지만, 인간이 지닌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수를 바로 잡는다면 새 미래를 쓸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아시모프의 'C/Fe'는 인간과 로봇이 동등하게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을 지닌다. 어느 하나에 우월성을 두지 않고, 두 가지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한 것이다. 인간 전체와 비인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화를 이만큼 잘 표현한 기호는 없을 것이다. 아시모프가 만들어 놓은 미래를 들여다보으로써, 더 나은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들려주는 과거에서 온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1 강철도시』, 현대정보문화사, 2001.
_____. 『로봇2 별거벗은 태양』, 현대정보문화사, 2001.
_____. 『로봇3 열린 세계』, 현대정보문화사, 2001.
_____. 『로봇4 여명의 로봇』, 현대정보문화사, 2001.

2. 단행본 및 논문

- 김애령,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 9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20.
대중문화연구회 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화연구회, 1997.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_____,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22.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역, 『뻐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아이작 아시모프, 김선형 역,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창작백과』, 웅진씽크빅, 2010.
_____, 권루시안 역, 『아이작 아시모프의 과학 에세이』, 2007.
_____, 김옥수 역, 『아이, 로봇』, 우리교육, 2023.
엘C, 엘리스, 김용진·박범순 역, 『인류세』, 교유서가, 2021.
오노 슌타로 지음, 김정례 외 역,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 인간은 언제 괴물이 될까?』, 에스파스, 2017.
이동신, 「망가진 머리: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최평순/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2020.
토마스 맥서스, 이서행 역, 『인구론』, 동서문화사, 2011.
프란체스카 페란도,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2021.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3. 기타자료

- 남종영, 「인류세 대표 지층은 캐나다 '크로포트 호수」, 『한겨레 신문』, 2023.7.12.
유지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머스크, 그는 해냈다」, 『조선일보』, 2020.5.31.
임유진,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17.
홍승아,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KDI 경제정보센터, 2014.12.1.
자리아 고벳, 「지구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2022.9.17.
「세계인구」, 『Worldmeter』, <https://www.worldometers.info/kr/>, 2023.11.2 검색.
「EU, 로봇에 관한 법 정비 제안」, 『로봇신문』, 2017.1.17.

Abstract

The Coming Post-human Era, Rereading Isaac Asimov

Focusing on the robot city series *The Caves of Steel*, *The Naked Sun*, and *The Robots of Dawn*

Han, Seung-Woo *

Since his first short story about robots, *Robby*, Isaac Asimov has continued to craft narratives featuring robots equipped with positronic brain technology. He imagined a robot that incorporated safety principles instead of a cruel robot, and to this end, he devised the three robot principles. His novel predicted the problems of the Anthropocene, such as the Earth's destroyed ecosystem, population explosion, and food shortage, and accurately predic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robotics and the positronic brain. Asimov's novel is a classic that has influenced subsequent writers and filmmakers, establishing a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in turn, shapes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Robot City series, Asimov set the history of American pioneering as a metaphor and then brought the structure of a mystery novel to its core. By placing Detective Bailey in the detective role and the robot Dani in the partner role, a very unique atmosphere was created by fusing mystery and science fiction.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degenerated Earth and the space city enjoying a peaceful and advanced civilization, and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Frankenstein complex, robot enslavement, and the limitations of the three robot principles are highlighted.

'C/Fe', presented by Asimov in the novel, is a symbol that clearly expresses Asimov's ideal of pursuing a future world created by all humans and non-humans together. Asimov's concept of C/Fe unfolds the potential for humans and non-humans to collaborate in rebuilding the world side by side, standing on equal footing.

Keywords Isaac Asimov, Anthropocene, Toulouse, post-human, precious other, reglobalization, robot three principles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Chung-Ang University.